

##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오산학교와 명동학교

강영택(우석대학교/교수)

kangyou47@gmail.com

---

### 한글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민족학교였던 오산학교와 명동학교의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 오늘날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본질과 방향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두 학교는 국내외 민족독립운동의 거점이 된 명성 높은 기독교학교였다. 이 학교들이 억압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대적 사명이었던 민족교육을 충실히 수행하여 훌륭한 졸업생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데는 학교와 마을의 친밀한 협력관계로 형성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학교는 설립부터 마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학교는 좋은 교육의 기회나 문화행사가 있으면 마을주민들을 초청하였다. 학교는 주민들에게 학교의 모든 시설들을 열어주었고, 마을주민들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살핌으로 양측은 긴밀한 융합체를 이루었다.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학교와 마을은 자주와 평등이 기반이 되는 이상적 마을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오산학교와 명동학교가 마을과 가졌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오늘날 마을교육공동체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 주제어 》

마을교육공동체, 이상적 마을공동체, 오산학교, 명동학교

## I. 들어가는 말

마을교육공동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 특히, 교육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용어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1년부터 교육청의 주요 사업명으로 사용되던 것이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0년에는 우리나라 17개 교육청 혹은 광역시도의 지자체 모두가 예외 없이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할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커져있음을 알 수 있다(김승보 외, 2020). 그런데 마을교육공동체가 이처럼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어 자리를 잡게 된 배경에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이익의 결핍과 관계있다. 즉, 우리 주변에 존재하던 마을공동체가 점차 사라지고, 그 와중에 학교와 교회의 공동체성도 약화되어 어디에서도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마을교육공동체 현상은 단절되고 고립되어 가는 우리의 학교교육과 사회적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반성하게 하는 새로운 준거틀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종종 논의되고 실천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그 개념이 매우 협소하게 사용될 뿐 아니라 하나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강하다(이승훈, 2019). 마을교육공동체를 학교교육과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재검토하게 하는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으로 보는 대신 단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같은 수단으로만 간주한다면 이는 학교교육과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단절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맺어 양자가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지나온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체성의 회복을 추구하면서 양자가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루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사례들을 살펴보는 일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본질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학교였던 오산학교와 명동학교를 마을교육공동체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두 학교 모두 구한말에 설립된, 공동체를 중시하는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교육사상과 근대적 합리성을 토대로 한 서구의 근대교육이 결합된 모범적인 기독교민족학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학교들은 학교와 마을이 초기부터 긴밀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루어 마을교육공동체 논의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마을교육공동체의 뿌리를 1990년대 교육공동체를 기조로 했던 교육개혁정책이나 해방이후 간헐적으로 이어져 온 지역사회교육을 위한 평생학습 운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서용성 외, 2016).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뿌리가 훨씬 더 깊이 내려져 있음을 밝히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원형과도 같은 사례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존재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오산학교와 명동학교는 마을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학교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두 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일제의 압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주와 평등과 연대의 토대 위에서 이상적 마을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일제강점기 모범적인 학교였던 오산학교와 명동학교의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을 가진다.

첫째, 오산학교와 명동학교의 설립 배경과 교육목표는 무엇이었나?

둘째, 오산학교와 명동학교의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오늘날 마을교육공동체 논의에서 오산학교와 명동학교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먼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 관련 도서와 학술논문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두 학교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먼저 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혹은 지역

주민으로 학교에 직접 관여했던 이들의 저서, 회고록, 시, 메모 등과 같은 글들이 중요하게 수집되었다. 그리고 북간도의 명동학교 건물을 방문하여 재연되어 있는 당시 교실의 모습을 관찰하고 졸업생에 대한 소개 글과 교과서 등 여러 문서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한국학자들과 연변의 중국학자들이 쓴 두 학교에 대한 소개의 글과 학술논문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II.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및 논의의 현황

### 1.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연계를 통해 형성된다(강영택, 2017). 그러므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해하는 한 방법은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학교(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연계방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계방식은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느슨한 형태의 연계부터 강력한 형태의 연계까지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결합의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여 세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학교와 마을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바들을 상대방부터 제공받아 활용하는 상호활용의 연계방식이다. 둘째는 양자의 연계가 보다 체계화되어 서로 간에 소통과 협력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파트너십(partnership) 연계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학교와 마을이 각자의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하나의 새로운 융합체를 이루게 되는 유기적 협력관계 방식이다. 이 단계가 학교와 마을의 결합 정도가 가장 강한 경우이다. 그러나 결합이 강하다고 해서 양자가 가지고 있던 각자의 고유한 속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해서 각자의 속성이 더욱 분명해질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우리는 성숙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학교와 마을의

유기적 협력관계는 학교로 하여금 교육적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학교공동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한다. 동시에 마을 역시 학교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마을의 교육력이 증가하여 마을의 기능을 더 능숙하게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로 성장하게 된다. 유기적 관계 속에 있는 마을과 학교는 각자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할 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경계를 넘어 상대와 융합체를 이룬다. 이 때 학교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데는 ‘지역이 학교요, 학교가 지역이다.’(김조년, 1998)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이 표현은 교육의 중요한 세 측면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특성들을 보여 준다.

첫째, 교육 공간과 시간의 확대이다. 학교가 마을로 확장될 때 교육이 학교라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의 넓은 공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또한 교육이 학교교육에 한정될 때는 하루 중 수업 시간에만 교육이 발생하지만 마을로 확장되면 마을에서 학생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 즉, 하루 종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둘째, 교육하는 주체와 교육받는 주체의 확대이다. 마을이 학교가 될 때 가르치는 이는 학교교사를 넘어 마을의 주민들이 된다. 오늘날 마을주민들 가운데는 학생들의 교과지도나 비교과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이들이 많다. 또한 배우는 이들이 학교의 학생들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과 마을의 성인 주민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점차 수명이 길어지는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성인 학생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변화이다. 학교가 마을이 된다는 것은 가르쳐야 할 내용이 달라져야함을 의미한다. 학교란 삶의 현장과 분리된 공간으로 지식이 집약되어 있는 교과서를 통해 교육하기에 적합하다. 이에 비해 마을은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교과서를 통해 배운 지식을 검증하거나 실천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마을이 학교이든 학교가 마을이든 교육의 내

용은 삶의 현장에 보다 밀착되어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특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교수방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현실의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 프로젝트수업(PBL)을 진행하거나 토론과 발표 수업을 활용하게 된다.

학교와 마을이 이런 정도의 융합적 관계를 이룬 사례는 많지 않지만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바로는 충남 홍성의 풀무학교와 흥동마을이 있다(강영택, 2017; 양병찬, 2008). 그런데 풀무학교가 모델로 삼은 곳이 오산학교이다. 풀무학교의 설립자인 이찬갑은 오산학교 출신으로 이승훈을 도와 학교와 마을의 협력활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풀무학교를 실질적으로 일군 홍순명 역시 오산학교의 정신을 풀무학교에 계승하려 평생 노력했을 만큼 오산학교의 마을과의 관계는 모범적이었다(백승중, 2002). 명동학교는 조선 선비들의 교육을 중시하는 이상촌 사상에 기독교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등사상이 결합되어 설립되었다

## 2. 마을교육공동체의 논의의 현황

우리사회의 교육 담론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최근인 2010년 전후부터이다. 마을교육공동체와 유사 개념인 지역사회교육, 마을학교, 가정/ 학교/ 마을의 연계, 학교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은 우리사회에서 좀 더 이른 시기부터 논의가 되어왔다. 마을교육공동체가 교육정책 혹은 사업으로 등장하자 그 논의와 실천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확산의 속도가 빠른 이유는 공동체의 상실로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고, 마을교육공동체와 유사한 정책들이 그동안 꾸준히 시행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 될 수 있다. 양병찬(2019)에 따르면 마

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그 발생 배경 혹은 기원에 따라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뿌리를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 개방, 학교 중심의 교육공동체 만들기, 주민공동체교육의 다양한 실천, 마을 만들기의 추진 과정 등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그는 첫째, 학교개방이란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던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운동에서 강조 하던 바라고 하였다. 둘째, 학교 중심의 교육공동체 만들기관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교육공동체 개념을 일컫는 말로 학교가 교육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이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간의 교육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기여했지만 반면 마을(주민)을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는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셋째, 주민공동체교육의 다양한 실천이란 이전부터 지역사회에서 운영되어 오던 주민공동체 모임들 가운데 야학단체 같이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하던 모임들의 다양한 실천들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마을 만들기의 추진 과정이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에 마을학교가 포함되어 결국 이 프로젝트는 마을교육공동체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양병찬의 유형화 작업과 함께 유형화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서용성 외(2016)와 신서영과 박창언(2019)의 견해이다. 그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첫째, 교육과정적 접근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운영할 때 마을과 연계하고 마을을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둘째, 경제적 접근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협동조합, 학교매점, 공동육아 등을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셋째, 문화 예술적 접근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혹은 학교 밖의 모임에서 준비한 문화 활동을 마을의 문화행사나 축제에서 발표하여 학생들이 문화공급자가 되는 방식이다. 넷째, 진로직업적 접근은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그와 관련된 지식 기능 등을 익

히고자 마을을 활용하는 접근이다(서용성 외, 2016; 신서영·박창언, 2019).

마을교육공동체 논의에 관한 위의 유형화 작업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 논의를 좀 더 멀리 그리고 넓게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즉, 마을교육공동체는 통시적으로 짧게 잡아도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공시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넘어 일본과 서구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처럼 확장된 마을교육공동체 논의에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발전과정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교교육개혁적 접근이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학교교육의 보완이나 개선 나아가 개혁을 위한 한 방안으로 보거나 혹은 교육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보는 견해이다. 그런데 이 범주의 논의에는 관심의 초점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다(신서영·박창언, 2019).

둘째, 평생교육적 접근이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보거나 평생교육을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범주에서는 관심대상이 학생과 아동을 넘어 마을 주민들에 까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주 관심영역은 여전히 교육활동에 집중되고 있다(김용련, 2019; 배영주, 2019; 심성보 외, 2019)

셋째,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적 접근이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직론의 관점에서 교육 거버넌스를 위한 협력체제의 구조에 주된 관심을 갖는 견해이다. 이 범주에서는 협력활동의 효과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 기관들의 구조와 시스템의 변화에 까지 관심이 심화 확대되었다. 그러나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마을 상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김은경, 2018; 조윤정, 2018; Davidson & Case, 2018).

넷째, 이상적인 마을공동체적 접근이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교육생태계가 살아있는 이상적인 마을 만들기의 한 과정으로 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마을공동체의 건설 혹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여기서는 마을교육공동체 논의가 단지

교육영역에 머물지 않고 현대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학적, 철학적 논의까지 나아간다(강영택, 2014; 심성보 외, 2019; 양병찬 2019; 홍순명, 2008).

위에 제시한 네 범주의 접근 중 어떤 접근을 취할 것인가는 학교와 마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교육개혁적 접근과 평생교육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접근들이 지금까지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마을교육공동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달해야 하는 바는 이상적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는 기독교교육적 관점의 논의들이 도움을 준다(고성휘, 2018; 김도일, 2016; 2019). 교회의 가르침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디아코니아)'에서 '이웃과 함께 존재함(코이노니아)'으로 강조점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이상적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김도일, 2016).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이상적 마을공동체 형성 과정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학교 사례들을 발굴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두 학교는 비록 지금부터 100년이 넘는 과거에 존재했지만 학교와 마을이 융합되어 상생을 추구했던 흔치않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III. 오산학교

#### 1. 오산학교의 설립배경과 교육목표

오산학교는 1907년 남강 이승훈에 의해 평안북도 정주시에 있는 오산지역의 용동마을에 설립되었다. 학교의 설립 배경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이승훈이라는 한 인간이 품어온 개인적인 희망과 관계한다. 그는 장사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자 예의바르고 청결하고 평등한 이

상존을 향한 염원을 품게 되었다. 다른 하나의 배경은 이승훈이 학교와 마을을 조성할 즈음 그에게 영향을 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관계한다. 특히 개화기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준 교육구국운동과 민족독립을 위한 비밀결사단체였던 신민회와 안창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오산학교의 설립이념은 이승훈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힘이 없어 나라 잃은 백성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나라의 힘을 키워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생의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 나라를 세운다는 ‘교육구국(教育救國)’이 오산학교의 교육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교육을 통해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는 선생을 양성하는 일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오산학교의 목표인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특정 자질을 갖춘 인재상이 요구된다. 이승훈은 오산학교에서 가르고자 하는 인재상을 ‘밝고 덕스럽고 힘있는 사람’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힘이 있는 혹은 실력 있는 사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지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 뿐 아니라 성품이나 인격의 면에서도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승훈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했다. 그가 학교의 목표와 인재상과 관련해서 말한 바들을 직접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글만 많이 읽고 태도가 도도하고 손이 약한 선비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실제로 손에 비를 들고 깡이를 잡는자...(오산백년사 편찬위원회, 2007).

오산학교에서 가르친 교과목은 수신, 역사, 지리, 영어, 산수, 대수, 헌법 대의, 물리, 천문학, 생물, 광물, 창가, 체조 등이었다. 이승훈이 기독교신앙을 갖게 된 이후부터는 성경을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성경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강인하게 기르기 위해 군사훈련과 체조를 열심히 시켰다. 남강을 비롯하여 교장 백이행과 초기 교사들이었던 여

준, 서진순, 박기준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교한지 불과 2년 만에 오산 학교는 1909년 8월 11일자 『황성신문』으로부터 “평북일대에서 교육정도가 제일”이라는 평판을 얻기에 이르렀다(조현욱, 2002, 56).

오산학교의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은 졸업생들을 신실한 신앙인이면서 애국자로 살아가게 했다. 신앙으로 일제의 신사참배에 저항하다 옥중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 평생을 겸손한 신앙과 인격으로 하나님과 민족을 섬긴 한경직 목사, 독특한 기독교사상이면서 역사가로 한국사상사에 큰 영향을 끼친 함석헌 선생 등이 모두 오산학교의 교육으로 형성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많은 졸업생들이 남강이 강조한 대로 전국으로 흩어져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학교의 선생이 되었다.

## 2. 오산학교와 용동마을의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특성

오산학교와 학교가 위치한 용동마을은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을 전체가 학교 학생들을 돌보는데 적극적이었고, 학교는 마을 주민들의 배움과 마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래서 오산학교가 있던 이 마을은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농촌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모범적인 마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여기서는 이승훈이 힘써 만들고자 했고, 어느 정도 성취한 모범적인 마을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의 필수적인 조건인 학교와 마을의 유기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승훈의 오산학교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실천에는 안창호와 신민회의 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안창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특히 교육운동과 이상촌건립 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사실상 이 둘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즉, 안창호가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촌 내에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농업, 양잠, 임업, 원예, 목축 등을 교육하는 곳이다. 그곳에는 실습을 중시하여 밭과 논, 채소원, 과수원, 조립 등이 있고, 이와 함께 공업과 토목 관련 시설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훈이 오산지역에 만들고자 했던 이상촌도 이와 유사했다.

### 1) 오산학교와 용동마을의 유기적 협력관계

오산학교가 자리 잡은 용동마을은 이승훈이 1899년 문중 사람들 20여 가구와 함께 이주하여 살게 된 작은 마을이다. 오산학교는 이승훈이 주도하여 설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을 주민들 역시 학교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오산학교 학생들을 집에서 기숙을 시키기도 하고 학교교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학교 역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였다. 1920년대에는 학교를 확장하면서 교원 사택과 학교병원 그리고 목욕탕을 짓게 되었는데 이 시설들을 마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개최되는 강연회나 음악회에도 주민들을 초대하여 함께 문화를 향유하며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 오산학교 교사들은 교회, 동회/자면회, 야학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을교회와 동회 모임에서는 학교의 학생과 교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오산학교의 졸업생 김기석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오산에 사는 주민들은 남강을 ‘우리 선생’이라 부르고, 학교를 ‘우리 학교’라고 불렀으며, 학생들을 ‘우리 학생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집에 학생들을 기숙시켰는데, 학교의 정신과 방침에 따라 부형으로서 학생들을 보살피 준다는 생각이었고, 학생들을 두고 그들에게서 대가를 받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주민과 주민 사이, 주민과 학생 사이에는 한 가지 소망 아래 같은 마을 같은 지붕 밑에 있다는 가족의식이 그들의 사이를 맑게 흘렀다. 학생들은 옆집 어린애들을 목마를 태우거나 손목을 잡고 다녔고, 목욕탕에서는 아저씨와 노인들의 등을 밀어드렸다. 오산을 다니던 학생이나 거기 살던 사람들은 아직도 북쪽 채석산 밑에서 벌어졌던 이 아름다운 이상향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김기석, 2005, 315-316).

## 2) 오산학교가 중심이 된 이상적 마을공동체 건설

이승훈은 이상촌을 건설하는 것이 그의 일관된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었다. 상인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뒤에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하듯이 같은 집안 사람들을 모아서 이상적인 촌락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다 나라의 주권이 침탈당하는 상황 속에서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그와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가 추구하던 이상촌의 내용이 바뀌어 갔던 것이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적 마을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승훈은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건설이 나라의 주권을 앗아간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가 꿈꾸고 추구했던 이상촌의 특성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김기석, 2005; 백승중, 2002). 첫째는 동회와 협동조합 같은 마을자치조직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적 역량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배움이 일상화되는 마을학습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온전한 마을공동체에는 교육과 배움이 토대를 이루되 신앙이 신실하고 산업이 발달하여 주민들의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뒷받침 한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훈이 추구했던 이상적 마을공동체는 자치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자치역량이 있어야 하고, 자치역량은 교육과 실천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강연회나 교회에서의 부흥회에 교원들 뿐 아니라 주민들도 초대하여 함께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자치역량은 용동회와 같은 주민자치조직에 참여하면서 강화되어 갔다. 이승훈은 용동을 비롯한 오산의 모든 마을에 동회를 조직하고 이를 묶어 협동조합을 설치했다. 협동조합의 회의는 각 동회의 대표들이 모여 주민들의 생활관련 이슈들과 공동생산, 공동노동, 교육계몽 등의 문제들을 토의한다. 용동회의 발전한 형태인 자면회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관심을 두었지만 동시에 신문이나 잡지의 구독을 권하고 계몽 강

연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 교육에 힘을 썼다. 이러한 주민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은 자면회 중 청년회로서 오산학교 졸업생들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오산학교는 자치역량을 갖춘 졸업생들을 배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닦는데 기여한 것이다.

둘째, 이승훈은 마을의 중심에 학교를 세웠다. 이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배움/교육이 마을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상적인 마을은 배움이 일상화된 마을공동체이다. 이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추구하는 바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오산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뿐 아니라 마을에서도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 학교의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학교에서만 한 것이 아니었다. 방과 후 저녁시간에도 교사가 기숙하는 하숙집에 아이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치곤 하였다. 학교와 교회에서 개최되는 강연회와 강습회는 학생들과 마을주민들의 배움의 장이 되었다. 또한 자면회의 청년들이 주민들에게 권고한 신문과 잡지의 열람은 배움을 일상화하는 매우 훌륭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승훈은 마을에 학교, 교회, 산업시설이 조화롭게 갖추어져야 이상적인 마을공동체가 된다고 보았다. 오래전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승훈은 1910년 자신이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이자 오산학교를 기독교학교로 만들고 마을에 오산교회를 건립하여 주민들도 신앙을 갖도록 권면했다. 이승훈에게 기독교신앙은 나라 잃은 슬픔을 위로해주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에는 신앙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죽기 전 동상제막식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도 견디며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은 신앙으로부터 연유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는 교육과 신앙 그리고 산업이 서로 연결되어 완전한 자치를 이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 하에 이승훈은 자기 자신이 살고 있던 용동을 중심으로 한 오산일대가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적, 문화적 및 윤리적 지역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오산을 조선 민족

전체가 본받게 하고 싶다는 것이 이승훈의 꿈이었다 (백승중, 2002, 131).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갖는 마을공동체는 이승훈의 마음 속에 있었을 뿐 아니라 현실 가운데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일단의 모습을 오산학교의 교사로 있던 이광수의 글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동네 전체가 예수교인 것과 또 이 동회로 하여 이 동네는 이웃 다른 동네와는 판관인 동네가 되었다. 술과 노름이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어느 동네에나 흔히 보는 이웃끼리의 싸움도 없었고 집과 옷들도 다 깨끗하게 되어서 헌병들이 청결검사도 아니 들어오게 되었다. 이 동네에는 실로 경찰이 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한규무, 2008, 74).

## IV. 명동학교

### 1. 명동학교의 설립배경과 교육목표

1899년 북간도로 집단 이주한 함경북도의 유학자들과 가족들은 매입한 땅을 열심히 개간하여 농산물을 수확하게 되었다. 그러자 곧바로 그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후진양성을 위해 그들이 거처하는 세 곳에 서재들-규암재, 오룡재, 소암재-을 설치하였다. 규암재는 1901년 장재촌에 김약연이 직접 기와를 굽고 나무를 잘라 지은 기와집 건물에 자리 잡았다. 규암재에서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한문과 한학을 배웠다. 용정에서 이상설의 주도로 운영되던 서전서숙이 1907년 문을 닫자 김약연은 이듬해 세 서재를 통합하여 명동서숙을 개교하였다. 명동서숙에는 서전서숙에서 교원으로 있던 박무림을 초빙하여 숙장을 맡겼다. 명동서숙은 교육의 내용에서 서전서숙과 같이 근대교육을 표방한 교육기관이었다. 명동서숙은 1908년 명동학교로 개명하였다.

명동학교의 교육목표는 분명했다. 그것은 민족정신의 고취를 통해 반일

민족독립 정신을 실천하는 청년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정신은 명동학교의 교가와 응원가에 잘 나타난다. 명동학교의 교가와 응원가는 다음과 같다(허청선·강영덕, 2014).

흰 뿔이 우뚝코 은택이 호대한/ 한배검이 깃치신 이 터에 그 씨의 크신  
뜻/ 넓히고 기르는/ 나의 명동 (교가)무쇠 골격 돌 근육 소년 남자야/ 애  
국의 정신을 발휘하여라 다다랐네 다다랐네 우리나라에/ 소년의 활동시  
대 다다랐네 만인대적 연습하여 후일 전공 세우세 절세영웅 대사 없이  
우리목적 아닌가 (응원가)

교가의 가사에서 흰뿔은 백두산을, 한배검은 단군왕검을 뜻하며 그 씨인 단군자손들이 터전으로 삼은 이곳에서 그 열과 혼을 보존하자는 열망을 담고 있다. 응원가 역시 애국정신 함양하여 일제에 항거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동학교에서 민족정신과 근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가르친 교과목들은 매우 다양했다. 먼저 학교의 소학부에서는 국어, 한문, 산술, 주산, 이과, 작문, 습자, 창가, 체조, 지리, 역사 등의 과목들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중학부에서는 역사, 지지(地誌), 법학, 지문, 박문, 생리, 수신, 수공, 독립사, 위생, 식물, 사범교육, 농림학, 광물학, 외국어번역, 중국어, 신약전서, 작문, 습자, 산술, 대수, 기하, 창가, 체조(군사훈련) 등의 과목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문예와 체육활동을 실시하였는데 강연회나 토론회가 주요 프로그램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영웅이 시대를 창조하는가, 시대의 영웅을 창조하는가?’ 같은 수준 있는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허청선·강영덕, 2014, 28)

교육성과의 면에서도 명동학교는 명성에 걸 맞는 결과를 내었다. 그 결과는 졸업생들의 면면을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졸업생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운동주와 송몽규 시인, 영화 아리랑의 감독 나운규가 있고, 종교 학문 분야에는 문익환과 문동환 목사 (한신대 교수) 등이 있다. 이들 뿐

아니라 학교의 평범한 학생들과 졸업생들 역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민족정신을 토대로 항일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허다하였다. 졸업생 문제린의 증언에 따르면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졸업생이 11명이 넘는다고 한다(문영금·문영미, 2006). 그리고 명동학교 학생들이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1920년 10월 일제에 의해 명동학교와 명동마일이 토벌된 일이다. 명동학교는 3.13 연변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한 이후 항일무장단체의 항쟁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일제는 명동학교를 ‘불령단’의 소굴로 인정하고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결국 학교와 마을을 수색하여 교원과 주민 10여명을 현장에서 사살하고 90여명은 체포하였다. 그리고 학교와 교회는 방화로 전소되었다.

## 2. 명동학교와 명동촌의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특성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상호 특정한 관계를 가질 때 형성되는 것이다. 즉 양자가 상호 관심을 갖고 서로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여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룰 때 가능해진다. 유기적 협력관계란 학교와 마을이 상호간에 교육적 자원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서로가 한 운명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주체의식과 연대의식을 갖는 관계이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이러한 학교와 마을의 유기적 협력관계의 결과이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마을은 배움의 터전이 되기에 마을을 건강한 교육생태계로 만들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는 먼저 명동학교와 명동촌의 경우 유기적 협력관계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마을교육공동체로서 명동을 비롯한 간도지역이 어떤 교육생태계의 모습을 갖고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명동학교와 명동촌의 유기적 협력관계

#### (1) 명동학교의 설립과 운영주체로서의 명동촌

명동촌에서 서원이나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은 그 지역에 정착하고 2-3년 후에 생겼지만 사실상 이주민들의 생각 속에는 이주를 계획할 때부터 교육시설은 존재했었다. 이주민들을 이끌었던 집안의 어른들은 고향땅에서도 학자와 교육자로서 신망이 높은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이주를 결심한 목적 중 하나가 나라를 구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에 교육은 마을의 첫 번째 중요한 과업이었다. 그래서 서원이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때도 그 필요한 바들을 마을에서 총당하였다. 이주민들이 명동촌에 정착하면서 광활한 토지를 구매하였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땅을 구별하여 전제토지의 1할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삼았다. 이 땅은 학전(學田)이라 하여 마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도록 했다. 학전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교사들의 식량으로 제공되었고, 교사 봉급 1원도 학전에서 총당하기 일췌였다. 학교의 재정이 어려울 때는 교원들에게 봉급을 주지 못했다. 그럴 때는 가정이 있는 교원에게는 학전의 일부를 주고 농사를 지어 살도록 하고, 독신 교원에게는 학부형의 집을 돌아가면서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땀나무와 쌀과 교원의 의복도 학부형들이 해결하였다.

마을은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핵심 교원들도 배출하였다. 명동학교의 기초가 되었던 세 서원의 설립자인 김약연, 김하규, 남위언 모두 마을의 신망 높은 어른들이었고, 김약연에 이어 명동학교의 3대 교장이었던 김정규도 역시 함께 이주해 온 마을 주민이었다. 명동학교의 시적인 명동서숙이 개교했을 때의 첫 교사인 김약연, 김학연, 남위언과 학교의 재정을 관리했던 문치정 모두 한 마을 출신이면서 근대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1925년 명동학교의 중학부가 내외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고 소학교만 남았을 때나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의 영향으로 북간도의 만세운동에 명동학교가 앞장섰다는 이유로 1930년 5월 소학교마저 문을 닫았을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학교의 문을 다시 열게 한 것도 명동학교와 명동마을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준다(한철호, 2009).

요약하면, 명동학교는 명동마을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된 학교였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마을이 학교를 위해 헌신하듯 학교 역시 마을에 헌신하였다. 그러나 학교는 마을만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았다. 명동마을의 아이들이 학교교육의 주 대상이었지만 학교는 명동마을을 넘어 한반도와 중국과 러시아에 사는 우리 동포들까지 품었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 역시 마을을 넘어 민족과 조국의 독립과 안녕에 있었다.

## (2)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의 명동학교와 명동촌

명동촌은 학교의 운영을 책임지고 어려운 재정 부담을 감수하였다. 학교의 운영비를 위해 주민들은 기꺼이 학교밭(學田)을 마련해 주었고, 교사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주었다. 명동학교가 유명세를 타게되자 다양한 곳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이 때 주민들 가운데 비교적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 손님들을 접대하였다. 그 집의 며느리였던 김신묵의 증언에 따르면 손님을 위한 밥상이 열두 개나 되었고, 어떨 때는 하루종일 음식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고도 한다(문영금·문영미, 2006). 학교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지극히 중요한 것이었기에 학교를 위해 하는 수고로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다. 1920년 일제에 의해 학교가 전소되었을 때 학교재건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보여준 태도는 학교와 마을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당시 교장 김정규가 학교교사를 다시 짓는데 앞장을 섰고 교직원과 학생 및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주민들은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자원출손(自願出捐)하였으며, 기와 굽는 장소에서 약 10주간 부녀들이 쪽 늘어서서 기와를 운반했다”(한철호, 2009, 254)

명동마을이 학교를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명동학교 역시 마을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아낌없이 내놓았다. 학교교실은 교회 설립 초기에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하여 많은 방문객들을 수용할 집이 부족하여 학교 시설을 그들에게 숙소로 제공 되었다. 명동학교가 교육을 필요로 하는 마을 주민 모두에게 교육적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

을 인식하고 야학을 세워 학교교육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야학은 학교와 마을의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좋은 사례임을 명동학교는 보여주었다. 명동마을 주민들이 학교를 위해 헌신적이고, 학교 역시 마을의 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모두가 학교와 마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학교는 가정의 연장이었고 가정의 확대 집단인 마을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다.

## 2) 건강한 교육생태계로서의 명동촌 혹은 북간도

명동학교를 설립한 마을의 지도자들은 학교와 마을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학교는 아동들에게 근대적 가치와 애국정신을 교육하는 공간의 역할을 하였고, 마을은 동일한 가치와 정신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현장으로 보였다. 그래서 학교가 있는 명동촌을 근대적 정신이 살아 숨쉬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나아가 간도지역 전체에 관심을 갖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마을이 교육생태계로서 작용함으로 아동들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마을의 삶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교육생태계로서의 명동마을이 갖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1)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범적 태도를 보이는 마을

김약연을 비롯한 마을의 지도자들은 한학을 공부한 유학자들이었지만 책 속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실생활에 필요한 육체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끝나면 밭으로 나가 농부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고 거름을 퍼 나르기도 하였다. 김약연은 규암재라는 서재를 지을 때는 직접 기와를 구우며 건물을 짓는 일에 함께 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재를 털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마을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헌신적인 삶의 태도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명동촌에 살면서 명동학교를 다녔던 문동환 목사는 생전 인터뷰에서 자신이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존경

하던 김약연선생이 목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교교원들이 항일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본 학생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일민족운동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을 때 연변의 용정에서도 3월 13일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명동학교 학생들이 그 지역의 수천 군중의 선두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집회에 참여하였고, 유혈사태 속에서도 명동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총렬대’가 제일 앞에서 대오를 이끌어 갔다. 이처럼 명동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교사 뿐 아니라 마을 어른들의 삶의 모범을 따라 민족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갔다.

### (2) 신분과 성별의 차별을 극복한 평등한 마을

명동촌은 모든 주민이 평등한 근대적인 마을을 이루고자 했다. 그래서 마을의 어른들인 선비들도 농부들과 함께 밭일을 하고 거름을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즉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노동에 대한 귀천의식을 넘어서고자 하였다. 특히 명동마을에서는 당시 일상화되어 있던 남녀차별의식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소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11년 명동여학교를 설립하였고, 그곳에는 드물게도 여성을 교사로 채용하여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시 여성들은 자신의 한자 이름을 갖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어릴 때는 ‘개똥네’와 같은 아명으로 불리다가 결혼 후에는 ‘회령댁’ 같은 택호로 불리었다. 그런데 명동촌에서는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동일하게 한자로 된 이름을 갖도록 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들의 이름 첫 자에 믿음 신(信)을 많이 넣은 점이다(문영금·문영미, 2006). 이는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문과 문벌을 넘어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식구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일제와 중국과 같은 외부의 통제를 벗어난 자치적 마을

명동마을 지도자들은 주민들의 삶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그들의 노력은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는 주민들에 대한 근대의식의 교육과 자치를 위한 근대적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조합운동이었다. 둘째는 주민들의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이었다. 마을지도자들은 먼저 명동촌을 자치적인 마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곧 그들의 관심은 명동촌을 넘어 간도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들은 간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우리 민족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래서 1909년에는 간민교육회란 조직에 참여하여 간도지역 이주민들에게 근대교육을 통해 근대적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였다. 간민교육회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한인 신도들이 한인들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길지부의 비준을 받고 세운 교육기관이었다. 그리고 나아가 민족교육을 통해 항일구국 정신을 고양하고자 하였다. 특히 김약연은 1913년 간도지역 최초의 한인자치기구인 간민회 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간민회의 회장이 되었다. 그는 이러한 조직들을 통해 모범적이고 자치적인 농촌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당시 우리에게 낯선 조합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생산조합, 판매조합, 소비조합 등을 결성하도록 지원하였다. 간민교육회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사립학교운동을 추진하였다. 간민회는 비록 짧게 존속하였지만 간도지역 이주민들의 자치권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주민들과 중국관청 사이의 교섭을 중재하거나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주면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 항일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 (4) 기독교신앙을 공유된 신념으로 예의범절을 지키는 신뢰의 마을

1909년 명동학교에 정재면 선생이 부임하면서 기독교신앙이 학교의 주지가 되었다. 1910년 명동교회가 설립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기독교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은 이들을 결집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당시에는 교회와 학교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종종 있었다. 북간도에서 학교와 교회는 이심동체로 존재했다. 교회가 설립 되면 학교가 병설되었고, 학교가 설립되면 교회가 세워졌다(문영금·문영미, 2006). 신앙과 교회는 개인의 사적 생활에 관계하기보다 마을과 사회의 중심점으로서 나라 잃은 사람들의 공허감을 채우는 대안적 신념과 가치의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명동촌에서도 일요일이면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허청선·강영덕, 2014).

기독교적 신앙이 토대가 된 명동마을은 다른 농촌마을과는 차이 나는 특징들이 나타났다. 마을에는 술주정과 노름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주민들이 예의범절을 잘 지키며 상호간에 신뢰감이 있고 객을 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명동촌이 민족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도 그들을 정성껏 안전하게 대접하였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하러 가기 전 명동촌에 들러 며칠을 머무르며 사격연습을 할 만큼 명동촌은 믿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마을의 특징을 1919년 명동으로 이주해온 한준명 목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당시 ‘명동촌에는 중앙에 학교와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고, 동네 안에 길도 넓게 닦혀 있으며 집집마다 재봉틀이 있는 근대식 마을’이었다고 한다. 특히 그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말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것이다. 그는 “그분들이 쓰는 말이 얼마나 순하고 은근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요. (중략) 그들은 예의범절에 있어서도 기가 막혀요.”라고 경탄하였다.(허청선·강영덕, 2014, 319-329).

명동촌은 이와 같이 단정하고 상호신뢰가 있는 마을이었을 뿐 아니라 따뜻하고 정이 가득한 마을공동체였다. 신앙을 토대로 한 생활공동체로서 명동마을의 풍경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그곳에서 보낸 윤동주의 시에서 잘 나타난다. 그중 한 편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童詩굴뚝

산골작이 오막사리 나즌굴뚝엔/ 몽기몽기 웨인내굴 대낮에솟나,  
감자를 굽는게지. 총각애들이/ 감박감박 검은눈이 물여앉아서,  
입술이 꺼머케 솟을바르고./ 냇 이야기 한커리에 감자하나식,  
산골작이 오막사리 나즌굴뚝엔/ 살낭살낭 솟아나네 감자굽는내.  
(一九三六가을).

이 짧은 동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마을의 풍경에는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라 잃은 이주민들의 산골짜기 생활이 가난으로 점철된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꿈과 열정으로 삶을 꾸려가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이곳의 생활은 그저 견뎌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에는 그러한 고통이나 운명에 대한 체념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철저한 성찰과 참회의 시인인 윤동주의 눈에 포착된 마을의 풍경이 이러하다면 그것은 과장되거나 상상된 것이라기보다 당시 그곳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윤동주의 많은 시들이 그에게 고향과도 같은 북간도 명동촌에서의 기독교생활공동체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음은 평론가들에 의해 밝혀진 바이다(김치성, 2016).

이 시에 나타나는 명동마을에는 대낮에 총각들이 모여앉아 감자를 구워 먹고 있다. 그 모습에는 가난의 한탄이 아닌 친근함과 해학이 담겨있다. 구운 감자를 맛있게 먹느라 입술에 검은 솟을 묻히고는 상대의 얼굴을 보고는 킁킁되는 모습에서 웃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여유로움을 볼 수 있다. 감자를 한 알 먹고 이야기 하나 하고 또 감자 한 알 먹고 이야기 하는 총각들의 모습은 서로간의 친근함과 삶의 공유를 보여준다. 이처럼 삶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마을공동체의 모습이 아주 단순한 동시로 표현되고 있다.

## V. 오산학교와 명동학교가 주는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산학교와 명동학교는 조금의 차이점은 있지만

많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오늘날 학교와 마을의 협력적 관계 위에 형성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다 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공해 준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설립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학교가 국공립이던 사립이던 관계없이 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학교는 두 걸출한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산학교는 이승훈이라는 민족교육에 뜻을 둔 선각자에 의해 세워졌으며, 명동학교는 김약연이라는 북간도의 대표적인 민족지도자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인물들이 학교설립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설립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주민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오산학교는 설립 과정에서 신민회라는 단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고 마을 주민들의 지지와 후원 역시 이 학교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명동학교는 직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학교라 할 수 있다. 고향인 함경북도 성진을 떠나 북간도로 이주한 이들이 명동마을을 개척하였고 이어서 명동학교를 개교하였기에 이 학교는 마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오산학교와 명동학교는 그 학교들이 있던 마을의 기반 위에서 설립이 가능했고 마을이 추구하는 바를 학교가 공유하면서 학교의 운영이 시작되었다.

둘째, 학교와 마을의 협력관계를 형성할 때 어느 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오산학교와 명동학교의 사례는 양자의 관계가 성장하면서 초기의 마을주도형에서 점차 학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융합형으로 발전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오산학교와 명동학교는 마을이 먼저 형성되었고 그 마을의 정신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학교를 마을의 기반 위에서 설립하였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마을이 학교 설립과 운영에 주요 역할을 하였지만 곧 학교가 성장하여 마을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상호교류가 긴밀하고 활발하여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기

보다는 호혜적 관계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의 협력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오산학교와 명동학교는 청년들의 민족정신을 고양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통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보면 두 학교는 조금 다른 목표 추구 방안을 실천하였다. 오산학교의 창립자 이승훈은 학교가 중심 역할을 하는 마을을 구상하며 교육, 신앙, 산업이 조화로운 자치의 마을공동체를 꿈꾸었다. 그래서 오산학교는 용동마을 혹은 오산일대의 이상촌을 건설하는데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명동학교는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민족의 자치, 자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만세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을 실천하고자 했다. 마을은 학교의 그러한 목표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넷째는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적 활동내용은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이상의 높은 수준의 협력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도 두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해 마을의 자원을 제공받았다. 명동학교의 학전은 마을이 학교를 위해 제공한 물적 자원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명동학교는 마을 주민들의 평생교육과 민족의식 고양을 위해 야학을 열기도 하고, 지역을 넘어 북간도 전역의 우리 민족의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오산학교는 학교를 방문하는 유명 인사들의 강연에 주민들을 초청하고 마을 체육대회를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등 마을을 위한 교육과 문화적 센터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마을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가족처럼 보살피기도 하였다.

## VI.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최근 중요한 교육적,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마을교육공동체의

본질과 방향을 성찰하기 위하여 100년도 더 지난 우리 역사 속의 두 학교를 고찰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 논의는 대개 그것이 교육계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밝히고, 최근의 교육사에서 그 기원을 찾거나 외국의 유사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암울했던 식민지 시대의 학교들을 소환하여 오늘날 중요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일은 낯선 작업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고찰한 오산학교와 명동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로서 성공적인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두 학교 모두 설립취지에 맞게 투철한 민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당시 시대적 요구에 응답했음은 분명하다. 또한 마을과 깊은 교류를 통해 마을이 문화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성장했음도 많은 이들이 증언하는 바이다.

두 학교가 보여주는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특징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성숙한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지역에서는 학교와 마을이 친밀하고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학교와 마을의 경계가 모호한 융합체를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와 마을은 지속가능한 상생의 길을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도구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오늘날, 100여 년 전에 이미 온전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추구했던 두 학교를 깊이 들여다보는 일은 마을교육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것을 만들어 가는 열정을 다시금 배우게 한다. 남강 이승훈이 꿈꾼 것처럼 이 땅 곳곳에 교회(신앙)와 학교(교육)와 산업이 조화되는 평화의 마을공동체가 생겨나기를 희망한다.

## 참 고 문 헌

- 강영택 (2014). 이상적 마을공동체를 향한 홍순명의 사상과 실천. **기독교교육논총**, 40, 231-258.
- [Kang, Y. T. (2014). The idea and practice of Hong Soon-myung towards the ideal village commun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40, 231-258]
- 강영택 (2017). **마을을 품은 학교공동체**. 서울: 민들레
- [Kang, Y. T. (2017). *A school community that embraces the village*. Seoul: Dandelion.]
- 고성희 (2018). 협력적 관계가 교회와 마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4, 331-376.
- [Ko, S. H. (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on churches and village communities. *Th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54, 331-376.]
- 김기석( 2005). **남강 이승훈**. 서울: 한국학술정보.
- [Kim, K. S. (2005). *Nangang Lee Seung-hoon*, Seoul: Korean Academic Information.]
- 김도일 (2016).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7, 51-93.
- [Kim, D. I. (2016). Christian education moving forward to the local community. *Th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47, 51-93.]
- 김도일 (2019). 마을목회, 마을학교에 관한 기독교교육적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59, 159-194.
- [Kim, D. I. (2019). A Christian educational study on village ministry and village school. *Th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59, 159-194.]
- 김승보·김민석·김형민·이혜숙 (2020).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역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Kim, S. B., Kim, M. S., Kim, H. M., & Lee, H. S. (2020). *Village education community and loc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Korea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

- 김용련 (2016). 일본의 커뮤니티 스쿨이 주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시사점. 세미나 자료.
- [Kim, Y. R. (2016). Implications for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given by the Japanese community school. Seminar materials.]
- 김은경 (2019). 마을교육공동체의 협업체제 구축 방식에 대한 인식 분석. **성인계속교육연구**, 8(3), 21-39.
- [Kim, E. K. (2019). A perception analysis on the cooperative system establishment method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Adult Continuing Education Research*, 8(3), 21-39.]
- 김조년 (1998). **지역이 학교요, 학교가 지역이다: 풀무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Kim, J. N. (1998). *The community is the school, and the school is the community: Pulmu School and the local community*. Seoul: A book that opens tomorrow.]
- 김치성 (2016). 운동주 시 연구 : 북간도 기독교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Kim, C. S. (2016). A study on Yoon Dong-ju's Poem-Based on the Christianity in Bukgando(North-Gando). Hang-Yang Univserty doctoral dissertation.]
- 문영금·문영미 (2006). **기린갭이와 고만례의 꿈: 문제린, 김신묵 회고록**. 서울: 삼인
- [Moon, Y. G. & Moon, Y. M. (2006). *The Dream of Kirin-Gap and Go Man-Rye: Memoirs of Moon Moon-Rin and Shin-Muk Kim*. Seoul: Three]
- 배영주 (2019). 지방자치단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실천공동체(CoP)적 운영 방안 탐색. **교육문화연구**, 25(3), 209-228.
- [Bae, Y. J. (2019). A community of practice (CoP) operation plan of the local government's 'village education community' project. *Education and Culture Research*, 25(3), 209-228.]
- 백승종 (2002). **그 나라의 역사와 말**. 흥성: 그물코.
- [Baek, S. J. (2002). *The history and language of the country*. HongSeong: Geomulko.]

- 서용선 외 (201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탄생, 뿌리, 그리고 나침판**. 서울: 살림터.
- [Seo, Y. S., et al. (2016). *What is a village education community? Birth, roots and compass*. Seoul: Salimteo.]
- 신서영·박창언 (2019). 마을교육공동체의 현황과 쟁점.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8)**, 95-104.
- [Shin, S. Y. & Park, C. E. (2019).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village education community. *Journal of Arts and Humanities Convergence Multimedia Papers, 9(8)*, 95-104.]
- 심성보 외 (2019). **마을교육공동체운동: 세계적 동향과 전망**. 서울: 살림터
- [Shim, S. B., et al. (2019). *Village Education Community Movement: Global Trends and Prospects*. Seoul: Salimteo]
- 양병찬 (2008). 농촌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충남 홍동지역 '풀무 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4(3)**, 129-151.
- [Yang, B. C. (2008). Formation of a local education community through cooperation between rural schools and regions-Focused on the case of 'Pulmu Education Community' in Hongdong, Chungcheongnam-do. *Lifelong Education Studies, 14(3)*, 129-151]
- 양병찬 (2019). 마을교육공동체 현상의 확산과 진화. 2019년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 [Yang, B. C. (2019). The spread and evolution of the phenomenon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The 2019 Korean Educational Sociology Conference.]
- 오산백년사편찬위원회 (2007). **오산백년사:1907-2007**. 서울: 학교법인 오산학원.
- [Osan Hundred Years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2007). *Osan Hundred Years History: 1907-2007*. Seoul: Osan Academy, a school corporation.]
- 이승훈 (2019).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아니라 삶입니다. **민들레, 122**. 서울: 민들레.
- [Lee, S. H. (2019). A village education community, not a business, but a life.

*Dandelion*, 122. Seoul: Dandelion.]

조윤정 (2018). 의정부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연구: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형성을 중심으로- 2018년 한국교육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Jo, Y. J. (2018). A case study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in Uijeongbu: -Focused on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education governance - 2018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Educational Society.]

조현욱 (2002). 오산학교와 서북학회 정주지회. *문명연지*, 3(1), 37-62.

[Cho, H. W. (2002). Osan School and the Northwestern Society of Korea. *Munjeongyeonji*, 3(1), 37-62.]

한규무 (2008). **기독교민족운동의 영원한 지도자 이승훈**. 서울: 역사공간.

[Han, K. M. (2008). *Seunghoon Lee, the eternal leader of the Christian national movement*. Seoul: Historic Space.]

한철호 (2009). 明東學校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51, 262-280.

[Han, C. H. (2009).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Myeongdong School. *Korean Modern History Study*, 51, 262-280.]

허청선·강영택 (2014). **朝鮮族教育史料集2: 清朝時期**. 延吉: 延辺教育出版社

홍순명 (2008). 개교 50주년 풀무의 뿌리와 과제, 풀무교육 5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풀무교육 50년: 다시 새날이 그리워 2**. 홍성: 거물코.

[Hong, S. M. (2008). Roots and tasks of bellows for the 5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the school, The project promotion committee for the 50th anniversary of bellows education. *50 Years of Bellows Education: Missing New Days Again 2*. HongSung: Geomulko.]

Davidson, K., & Case, M. (2018). Building trust, elevating voices, and sharing power in family partnership. *The Phi Delta Kappan*, 99(6), 49-53. Retrieved December 10, 2020, from <http://www.jstor.org/stable/44653422>

---

Abstract

---

## A Study on the Osan School and the Myeongdong School as Village Education Communities

Young Taek Kang

Professor, Woos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examine the nature and direction of today's village education community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Osan School and Myeongdong School, which were representative national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village education communities. These two schools were prestigious private schools that became the base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s at home and abroad. The fact that these schools were able to produce excellent graduates by faithfully carrying out the national education, which was the mission of the time, despite the oppressive situation, was influenced by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formed by the organ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and the village. The two schools have had active support from the village since their establishment, and the schools invited villagers if there was a good educational opportunity or cultural event. The school opened all the facilities of the school to the residents, and the villagers took care of the students and teachers, forming a close fusion between the two sides. Based on this relationship, the school and village made an effort to create an ideal village community based on independence, equality and solidarity. As such, the historical examination of Osan School and Myeongdong School suggests implications that help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move forward to a more mature stage.

《 **Keywords** 》

village education community, ideal village community, Osan school, Myeongdong school

- 투고접수일 : 2021년 1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2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30일